‘전주, 다시 전통문화의 수도로’

한국전통문화전당, 대표 · 업무 슬로건 정하고 전주 옛명성 되찾기 위한 노력 펼치기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사진))이 ‘전주, 다시 ‘전통문화의 수도!’로’라는 새 슬로건으로 김도영 신임 원장의 출발을 알렸다.

전당은 25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도영 제5대 신임 원장의 취임과 함께 전당의 대표 슬로건으로 ‘전주, 다시 ‘전통문화의 수도!’로’를, 업무 슬로건으로는 ‘함께, 창신의 새 물결을 타자’로 각각 정했다”면서 “과거 전라도의 수도이자 전통문화의 중심지였던 전주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나씩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신임 원장은 △전당 조직인력과 물적자원의 잠재력 극대화 △철저한 기획 전략과 발 빠른 영업행정 및 신규 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민·관·산·학의 유기적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협업 및 산업화·국제화 표준모델 제시를 통한 수익형·고객만족형 성과관리 △시민참여형·주도형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도 제고 △직원 복리 후생 강화 및 세밀한 근무 평가제 도입 등 5대 핵심 업무방침을 내놓았다.

먼저, 전당 인력·물적 자원의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국가사업 발굴, 디지털 기술 접목, 그리고 이에 걸맞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리스쿨링·업스쿨링’ 지원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문기관 파견교육 등 각종 재교육을 강화, 미래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순환 보직제 정례화로 부서간 협력의 동기를 부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전당의 미래 생존과 존재 가치 확산의 해법은 ‘예산확보’에 있다고 보고, 재정 독립성 확보와 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맞춤형 영업행정’을 통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전주시 출연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속성과 이익창출이라는 민간기관의 속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특수성에 맞게 성과관리 체계의 도입을 통한 조직성과 제고를 전당의 가치 창출과 ‘기관 브랜드’로 노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산·학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범기 전주시장의 1호 공약사업으로 1조원대 ‘왕조궁원 프로젝트’와 ‘후백제 왕도 건립 사업’ 등 문화관광 산업화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문화자산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재생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주한지산업센터와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통과 명인들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기술혁신을 통한 대중화 모델이란 투트랙 산업화로, 한식창의센터와 우리놀이터 마루달은 아카이브 구축과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예산적·인력적 투자를 더 늘려 안정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시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위해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 외 국립무형유산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과 협업해 전주시 정책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수사원 인센티브제, 선진지 견학, 국제박람회 참여 지원, 급여 현실화 등 직원 복리 후생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세밀한 근무 평가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조직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영 신임 원장은 “전당이 우리나라 전문 문화예술기관 중 가장 모범적이고 진취적인 기관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호남의 수부였던 전주가 다시 한 번 ‘전통문화의 수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남원국제도자예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남원시에서 후원하는 제11회 남원국제도예캠프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11회 남원국제도예캠프 성료

17개국 작가 기획초대전 · 특강 · 물레경진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져

남원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남원국제도자예술연구센터(이사장 김광길)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남원시에서 후원한 제11회 남원국제도예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작가 400여명이 남원을 방문했으며, 공식주제는 정유재란 당시 남원에서 끌려간 심수관家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작가 ‘시바료타료’의 소설 제목 ‘고향을 어찌 잊으리’로, 국내외 도예작가 기획초대전을 필두로 초대작가 워크숍, 초청특강, 물레경진대회 등이 이어져 수준을 높이면서도 다채로운 국제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토요일 진행된 물레경진대회는 전국대학생, 대학원생 및 전문도예가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개인 참가자 박종현씨(원광대 졸, 도예공방 온도)가 대상을 차지했다.

한편 기획초대전은 남원아트센터 개관 기념초대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리스, 스페인, 일본, 미국, 중국, 영국, 터키 등 17개 국가 133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도예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남원아트센터(구 KBS한국방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초대전 출품작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김광길 대회 운영위원장은 “올 행사에서 17개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더 많은 도예인과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 도예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주시립극단 공동기획 연극 ‘리어왕’ 공연

연극 ‘리어왕’이 깊어가는 가을, 심금을 울리는 애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는 27~2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만날 수 있는 연극 ‘리어왕’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시립극단이 지역 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장의 협업무대라는 공공성 차원에서 공동기획한 4년 장기프로젝트 ‘가을 명작극장’의 마지막 무대다.

‘가을 명작극장’은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매년 1편씩 제작, 공연하는 장기프로젝트로 2019년 ‘오델로’, 2020년 ‘햄릿’, 2021년 ‘맥베스’를 차례로 무대에 올렸으며, 이번 ‘리어왕’을 끝으로 4년간의 긴 여정이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리어왕’은 원작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언어의 극적인 표현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각색했다. 절대적 광기와 강렬한 고통, 그리고 절대적 허무의 체험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리어왕’은 권력과 부를 물려받은 자식들이 배은망덕하게 아버지를 도탄에 빠뜨리는 등 탐욕에 눈이 멀어 추락하는 군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8000)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실버마이크 전북권 10월 정규공연 전주 · 완주 · 순창서 열린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실버마이크 전북권 ‘Jeolla 멋 眞’ 10월 정규공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버마이크 전북권의 10월 정규공연은 전북대학교병원(10월 26일), 완주 정심원(10월 27일), 순창발효테마파크(10월 29일)에서 열린다.

특히, 전북대병원 공연은 전북대병원 ‘행복콘서트’, 순창발효테마파크 공연은 재단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기획사업인 ‘문화의 길’과 연계해 진행된다.

각 공연별 5개 팀이 참여하며, 악기 연주와 노래, 마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실버 세대가 주체적으로 공연 기회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권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 ‘유혜정 작가 개인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11월 4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전시실 산마루에서 유혜정 작가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혜정 작가는 첫 전시회를 재단의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열게 됐다.

작가는“이번 전시회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소란하고 고달픈 인생길에 조금이라도 마음 둘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색감 속에 마음의 힐링으로 녹아져서 평화로운 일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예술회관, 2023년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023년 전라북도예술회관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는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이메일 접수 시 대관신청서와 계획서를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개방자원 통합플랫폼 ‘공유누리’(www.eshare.go.kr)서비스를 통해 검색·접수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2일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예술회관 전시실은 2023년부터 신규 개방하는 산마루(23평)를 포함, 기스락1(95평), 기스락2(42평), 차오름1(67평), 차오름2(41평), 미리내(66평) 총 6개의 전시실로 구성 운영된다.

내년 상반기 정기대관 선정자(단체)는 3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3개월 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다음주 목요일까지 1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대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공연기획추진단(063-230-748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